

곤시엄 調査 報告

姜 彰 彦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 1. 곤시엄 金鳳進 할아버지
 - 2. 곤시엄의 背景
 - 3. 곤시엄 하기
- III. 結 論

I. 序 論

한 地域의 文化를 알아 보는 데에 있어서, 많은 것을 參考로 比較하여 풀어 본다면, 더욱 가깝게 알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本稿는 濟州 文化를 알고자 할 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기 위한 調査 報告書이다. 사실, 아직까지 風俗·遺物·動物·植物·思想 等に 대하여서는 나름대로의 많은 調査와 研究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어떠한 慣習을 갖고 調査하고 研究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Egypt의 第18王朝 Tutankhamen 黃金棺 얼굴부분 수염 形式이라든가 Assyria의 Sargon 宮殿 浮屠에 나타난 Sargon 2世 像의 수염 形態를 보면, 地域마다 特異한 수염 形態가 있었다고 본다. 硏시엄¹⁾은 이러한 他 地域의 수염들과 比較하여 보기에 앞서, 우선 調査한 것을 土臺로 알아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硏시엄 金鳳進 할아버지

金鳳進 할아버지는 1905년에 慶尙北道 淸道郡에서 태어났다. 나이 7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같은 해에 할아버지, 아버지, 동생과 함께 일가족 4명은 濟州道 蘆左邑 松堂里로 移住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金鳳進 할아버지는 濟州島에서 平生을 사셨다하여도 過言이 아닌 분이다. 말씨도 濟州島 方言을 쓰고 계시다. 金鳳進 할아버지 나이 24세때, 같은 마을의 金玉彩 할머니와 結婚하였다. 子女는 2男 2女를 두고 있는데, 모두 出家하였다. 平生 主業은 農業이며, 가끔 잡일도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526坪의 밭에서 農事를 짓고 있으며, 이 외에 소 1마리, 돼지 1마리를 할머니와 같이 키우고 계시다.

2. 硏시엄의 背景

硏시엄을 한 金鳳進 할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쯤인 나이 75세 정도가 되니, 수염은 계속적으로 길고 계속 깎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옛날을

1) 硏시엄: 수염을 꼬은 것을 말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수염을 꼬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초까지 있었는데,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다. 硏시엄은 방언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硏 수염을 말한다. 조사할 때에 "시엄 꼬는거, 꼬는 시엄, 시엄 따운거, 따운 시엄"으로 불리우고 있어서 필자 나름대로 정리상 붙인 이름임을 밝혀둔다.

간시업 調査報告

생각하여 수업을 포기 시작한 것이다. 金鳳進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는 松堂이나 細花·舊左 등지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간시업을 하였다고 한다. 金玉彩 할머니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업이 긴 사람도 꼬았고, 2쪽 두든 사람도 꼬아서, 경한다. 시업 2쪽 두든 사람이 꼬와야 보기 좋추게. 그 시도 영 보민 나이가 든 사람이 꼬아서." (수업이 긴 사람도 꼬았고, 가뜩 난 사람도 꼬았다. 그리한데, 수업 가뜩 난 사람이 꼬와야 보기 좋단다. 그 때도 보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꼬았다) 라고 한다.

1) 金鳳進 할아버지가 간시업을 한 경우

- ① 옛날 있었던 풍습대로 하였다.
- ② 수업을 꾸지 못하여 하였다.
- ③ 눈이 어두워서 하였다.
- ④ 수업이 길어서 하였다.
- ⑤ 편리하기에 하였다.
- ⑥ 나이가 드니 하였다.
- ⑦ 수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였다.

2) 金鳳進 할아버지 내외분이 어렸을 때 본 경우

- ① 근대초(대략 1911~1930)년에 봤다.
- ② 신분·계급에 차별이 없었다.
- ③ 주로 50세 넘어 임종때까지 하였다.
- ④ 포기 시작하면 계속 꼬았다.
- ⑤ 수업을 꼬았다 하여 예외에 어긋나지 않았다.
- ⑥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었다.
- ⑦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였다.
- ⑧ 수업 긴 사람들이 하였다.

이상은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구분하여 봤다.

3. 간시업 하기

1) 빗질하기

정리가 안된 수염을 손으로 쓸어 대략 다듬은 다음에 잘 빗어 내린다. 수염을 오른손으로 가볍게 잡은 듯이 누르고, 3분의 1정도를 빗질한다. 수염이 서로 엉켜있기에 한 번에 빗질할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약간씩 빗질한 후에 끝손질로 길게 내리 빗는다. 이 때 사용되는 빗의 쌀 간격은 약 2mm 되는 빗이다. 빗질의 횟수는 대략 8~10회 정도이다.

2) 세 가닥 나누기

정리가 된 수염을 두 손으로 전체의 3분의 1쯤씩 어림으로 잡는다. 그 나머지가 가운데 한 가닥이 된다. 전체 세 가닥 양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손으로 각각 내려 쓸며 대략적으로 같게 한다.

3) 수염꼬기

세 가닥으로 나뉜 수염 중에서 오른 쪽의 것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위로 왼쪽 수염을 오른쪽으로 넘긴다. 즉, X자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가운데 수염이 오른쪽 수염쪽에서 나와 왼쪽 수염과 오른쪽 수염이 서로 엇갈려 있는 사이로 들어가 왼쪽을 향한다. (방향은 할아버지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순서별 꼬임이 1차례 꼬임이라 할 때, 5~7차례 꼬임으로써 수염 꼬기를 마치게 된다.

4) 끝손질 하기

꼬여진 수염의 끝을 한 손으로 가지런하게 잡은 다음, 꼬일 때 엉클어진 수염의 끝을 빗으로 3~4회 빗긴다.

5) 침바르기

끝손질하기가 끝난 수염을 잡아 입에 물고 침을 바른다. 그것은 끈수염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Ⅲ. 結 論

근시엄은 調査부터 難攻不落을 겪어야 했다. 金鳳進 할아버지 內外본은 健

곤시엄 調査報告

康하신데, 할아버지 말씀은 무거워 꼬박 5년에 16次例 調査를 하여야 어떠한 價値와 判斷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契機가 마련되면, 곤시엄을 他 地域에 比較 研究하겠다. 金鳳進 할아버지 內外분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1. 닦질하기 모습



2. 세 가닥 나누기 모습



3. 꼬을 준비 모습



4. 꼬을 때 손가락 상태



5. 첫번째 꼬이는 모습



6. 한 차례 꼬여진 모습



7. 세 차례 꼬여진 모습



8. 다섯 차례 꼬이는 모습

전시업 調査報告



9. 일곱 차례 꼬이는 모습



10. 꼬임 마무리 모습



11. 끈 수염 끝 모습



12. 수염 물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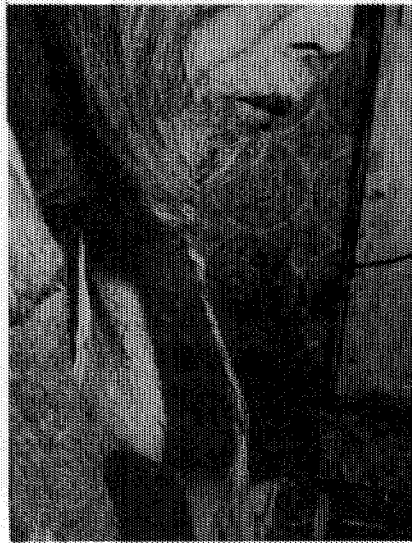
13. 입에 물기 모습



14. 침바르기 모습



15. 완성된 갓시엄 모습(정면)



16. 완성된 갓시엄 모습(측면)